
 금융위원회	보도반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10.26(화)	
책 임 자	금융위 행정인사과장 선 욱(02-2100-2750)		담 당 자	변경홍 사무관(02-2100-2752)	

제 목 :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4년만에 폐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(머니투데이, 10.26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- ☐ 머니투데이 10월 26일 「‘금융그룹감독혁신단’ 4년만에 폐지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연장불가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.”
 - “당초 혁신단은 유예되는 것으로 장관들 사이에 구두협의를 되었으나, 하반기 들어 행안부 내부기류가 혁신단을 연장하지 않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금융위원회는 국장급 별도조직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11월부터 과장급 조직으로 축소·연장 운영할 계획이며,
- 당초 장관들간 구두협의를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